

성인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및 독립의향과의 관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Perception and Independence Intentions of Emerging Adults: Youth Life Survey Results

1차원고접수: 2024.04.09. 수정원고접수: 2024.05.29. 최종재검정: 2024.06.23.

박은주¹ · 박정윤²

¹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²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Park, Eun Joo¹

Park, Jeong Yun²

¹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ang University

²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인이행기 청년의 독립의향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인식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19세 ~ 34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 중 부모 동거 남녀 청년 7,75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주요 도움의 원천은 가족이었고,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도움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낮아 청년 집단 전반에서 관계망 취약성이 나타났다. 둘째, 성별, 지역, 지역,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과 같은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선호 관계망 유형, 관계망 크기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 인식 모두 독립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실업자 집단 및 취업자 집단이, 가구소득 1분위 집단이 4분위, 3분위, 2분위 집단에 비해, 관계망 크기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독립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혀, 사회적 관계망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전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인이행기, 청년, 사회적 관계망 인식, 독립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social network perceptions on the independence intentions of emerging adults.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on a sample of 7,755 young adults living with their parents, selected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conducted among male and female young adults aged 19 to 34 in 17 provinces nationwide.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family was the primary source of assistance, and the perception of friend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was very low, indicating overall social network vulnerability among young adults. Seco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regio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as well as preferred social network sources and network siz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ependence intentions. Third, the probability of independence intention increased as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increased. This study empirically highlights the influence of young adults' social network perceptions on independence intentions and discusses the need for more sophisticated institutional support and improved delivery system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ocial networks.

Keywords emerging adulthood, young adults, social network perception, independence intentions, logistic regress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 실업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고용 악화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기회의 상실, 혼인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지식집약 산업구조로의 이동 등 청년들을 둘러싼 거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이전 시대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성인이

Corresponding to 박정윤 (Park, Jeong Yun)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E-mail. pjy4838@ca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이행이 지체되고 표류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 신체·정신 건강,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층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다시 성인기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Arnett(2000)은 청소년기 이후 독립된 성인기에 이르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으로 인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발달단계로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를 제안하였다. 성인이행기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진로선택, 대인관계 형성, 독립,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며 대인관계 및 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이다(김재희, 박은규, 2016).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로서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역할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Murphy, Blustein, Bohligh과 Platt의 연구(2010)에서는 개인의 웰빙과 관련한 예측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보고하였고, 이는 다양한 관계망 확충을 통한 사회적 지지 경험의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이루는 발달 성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는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며 부모의 지원이 감소하고(Sulimani-Aidan, 2015), 가족 외 다른 관계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Paulsen & Berg, 2016). 그러나 한국의 관계망 실태를 살펴보면, OECD 통계 ‘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망 지수’가 전체 41개국 중 38위에 그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OECD, 2022).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서도 코로나 이전보다 힘들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보고한 수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청년 집단의 사회관계에 관한 위험 신호가 두드러지게 감지되고 있고(통계청, 2023), 청년층에 있어 주변과의 사회적 관계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단절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2020년 이후 청년 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는 연구(정세정 등, 2022)도 늘고 있다. 관계망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청년 고독사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송인주, 2016),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며 사회

체계와의 관계 형성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사회적 지지 원천으로서 가족 의존은 높아지고 있다(김수지, 이선희, 권두리, 2020; 주유선, 202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1)에 따르면, 미혼남녀(20 ~ 44세) 중 62.3%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생활비의 원천이 부모의 도움이라고 응답하여, 부모에 대한 주거 및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모 동거 청년 중 상당수가 앞으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 및 가족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및 독립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Mitchell, 1974)할 수 있으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종교단체,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의 공식적 사회관계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윤희, 2016). Kahn과 Antonucci(1981)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생활 사건을 겪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관계망은 변화되며, 관계망 유형별로 개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달라짐을 밝혔다.

사회적 관계망 이론 중 위계적 보상이론(Cantor, 1979)은 연령에 따라 자신의 관계망에 있는 누구에게 도움과 지지를 제공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위계적으로 선호하는 관계망 체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관계망 선택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는 독립이라는 발달과업 성취를 위해 친구가 부모와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고 이는 자아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cholte, Van Lieshout, & Van Aken, 2001).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확장된 미래시간 조망을 가진 경우, 미래를 위한 준비, 학습과 탐구를 위해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한다(Carstensen, 1995; Liao & Carstensen, 2018). 즉 청년은 자신에게 인생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 추구의 목표가 강하며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크기가 크고 넓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모습을 보인다(Segrin, 2003).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욕구 및 특성이 변화됨을 밝혔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망 경험이 청년의 발달과업인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하여 청년 독립은 함께 논의해야 할 영역이다. 청년 독립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독립 및 주거 독립과 같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독립에 국한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보호 종료 아동, 장애 청년, 기초생활수급 청년과 같은 특수한 욕구를 지닌 취약 청년들에 관한 독립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영, 김태연, 2021; 노민지, 2022; 안희란, 이용교, 2020; 이준석, 김현주, 2016; 조성호, 2018). 청년의 독립을 경제적 독립으로 제한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는 연령, 부모소득, 성별, 지역, 학력, 취업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독립 격차가 있음이 밝혀졌다(송지현, 정소희, 2014; 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오호영, 2015;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 2011; 정기덕, 2018; 조현지, 진미정, 2023; Berg, 2007; Silva, 2012).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경험이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실증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청년의 관계망 관련 주제 및 대상 또한 제한적이었는데,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 및 니트 청년, 은둔 고립 및 1인 가구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과 같은 특수 지위 청년의 관계망 취약성을 밝힌 연구가 다수이다(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박미희, 2022; 안희란, 이용교, 2020; 유민상, 신동훈, 2021; 정세정 등, 2020; 조미형, 고아라, 2022).

그러나 최근 청년 전반의 자립 취약성과 사회 정책적 대응의 필요에 따라, 청년의 독립개념에 경제 및 주거 독립뿐만 아니라 관계독립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독립개념을 포괄하여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개념 확장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우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긍정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나, 독립의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등, 2022)’ 자료 중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와 ‘청년의 사회인식·미래 설계’ 부분을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이 도움받고 있는 관계망 수준과 관계망 유형별 선호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 요인의 영향을 밝혀, 청년기의 관계망 경험이 자율성과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청년들의 건강한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밝히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가족과 가족 외 지지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계망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성인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경향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성인이행기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과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성인이행기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통계청 승인 통계 3종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의 한계와 제한점을 보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이 주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서 협업 수행한 청년 통계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일반 가구 내의 19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 자료분석 연구로, 총 14,966건의 유효데이터 중 가구 유형에 있어 가구주인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7,755건을 연구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모든 변인을 범주화하여 코딩한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연령은 ‘19세 이상 ~ 24세 이하(1)’로, ‘25세 이상 ~ 29세 이하(2)’로, ‘30세 이상 ~ 34세 이하(3)’으로 코딩하였다. 거주지는 ‘수도권(1)’로, ‘비수도권(2)’로, 학력은 ‘고졸 이하(1)’, 대학 재학/휴학(2), ‘대학 졸업 이상(3)’로 코딩하였다. 취업은 ‘취업자(1)’, ‘실업자(2)’, ‘비경제활동(3)’으로 원코딩된 것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비경제활동(1)’, ‘실업자(2)’, ‘취업자(3)’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1)’부터, ‘2분위(2)’, ‘3분위(3)’, ‘4분위(4)’,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5)’로 코딩한 것을 사용하였다.

2)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통상 사회적 지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사회적 관계망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할 때 접촉 가능한 관계망의 양적 수치로 측정하였다. 도움 필요한 영역은 ‘갑자기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5가지를 제시하였고,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친척)’,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공공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관계망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영역 별로 도움 가능한 관계망을 합산하여 모두 선택한 경우 최대 ‘4’점에서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을 선택한 경우 ‘0’점까지 가용한 관계망 크기를 평정하였다. 5개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7,755)

변인	집단	사례수	%
	전체	7,755	100
성별	남	3,856	49.7
	여	3,899	50.3
연령	19 ~ 24세	4,807	62.0
	25 ~ 29세	2,139	27.6
	30 ~ 34세	809	10.4
지역	수도권	2,691	34.7
	비수도권	5,064	65.3
학력	고졸 이하	950	12.3
	대학 재학/휴학	3,195	41.2
	대학 졸업 이상	3,610	46.6
취업상태	취업자	4,347	56.1
	실업자 ¹⁾	314	4.0
	비경제활동 ²⁾	3,094	39.9
가구소득 ³⁾	1분위	366	4.7
	2분위	608	7.8
	3분위	1,770	22.8
	4분위	2,370	30.6
	5분위	2,641	34.1

주. 1) 실업자: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자, 2) 비경제활동: 학생, 심신장애인, 구직 단념자, 3)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구소득 5분위 기준에 따라 가구 총소득 분류(1분위: 하위20% ~ 5분위: 상위20%).

의 영역별 관계망 크기를 모두 합산하여 0점에서 20점 사이로 총관계망 크기를 평정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범주화하였다. 총관계망 크기의 평균값 및 분포를 고려하여 ‘0 ~ 5는 매우 작음(1)’, ‘6 ~ 7은 약간 작음(2)’, ‘8 ~ 10은 약간 큼(3)’, ‘11 ~ 20은 매우 큼(4)’으로 리코딩하였다.

선호하는 관계망 유형은 도움 영역별 가장 선호하는 관계망을 1개만 선택하도록 하여 ‘가족(1)’, ‘지인(2)’, ‘공공기관(3)’, ‘민간기관(4)’,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5)’으로 코딩하였다. 가족과 가족 외 관계망 선호가 독립의향이 미치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호하는 관계망 유형을 ‘가족(1)’, ‘가족 외(2)’, ‘도움받을 데가 없음(3)’으로 리코딩하였다.

3) 독립의향

가구주인 부모와 함께 동거중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문하여 독립의향을 측정하였다. ‘귀하는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있다(1)’로, ‘없다(2)’로 원코딩된 것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없음(0)’, ‘있음(1)’로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7.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회적 관계망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및 관계망 선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영역별로 가용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계망을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가족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같은 공식적 관계망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부당한 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큰돈, 생활비, 아플 때의 경우 가족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90%를 초과한 반면, 가족 외 관계망을 가용 관계망 자원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가족 관계망 의존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우울/스트레스, 부당한 일의 영역에서는 가족 응답 비율이 감소하고 지인을 가용 관계망으로

표 2.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유형(복수응답)

단위: N(%)

	사례수	가족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도움없음
큰돈 필요	7,755 (100.0)	7,337 (94.6)	2,485 (32.0)	726 (9.4)	130 (1.7)	224 (2.9)
생활비 부족	7,755 (100.0)	7,432 (95.8)	2,434 (31.4)	334 (4.4)	63 (0.8)	110 (1.4)
아플 때	7,755 (100.0)	7,473 (96.4)	3,074 (39.6)	497 (6.4)	150 (1.9)	58 (0.7)
우울/ 스트레스	7,755 (100.0)	6,007 (77.5)	5,282 (68.1)	390 (5.0)	274 (3.5)	149 (1.9)
부당한 일	7,755 (100.0)	6,277 (80.9)	4,143 (53.4)	1,724 (22.2)	345 (4.4)	213 (2.7)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68.1%, 53.1%로 증가하여, 도움의 영역별 가용 자원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영역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유형을 합산한 가족관계망 크기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영역별 평균값을 보면, 큰돈이 필요할 때 1.38($SD = .62$), 생활비가 부족할 때 1.32($SD = .54$), 아플 때 1.44($SD = .60$), 우울/스트레스 1.54($SD = .63$), 부당한 일을 당할 때 1.61($SD = .78$)으로, 모든 영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2개 미만에 그쳐,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망 인식이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를 모두 합산한

총 관계망 크기를 살펴보면, 평균 7.30($SD = 2.50$)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영역별 선호하는 관계망 유형 및 선호 관계망에 대한 가용 여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큰돈, 생활비, 아플 때의 경우 가족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우울/스트레스 및 부당한 일의 경우, 가족 대비 가족 외 관계망 선호 격차가 나타나지 않아, 도움의 영역별로 관계망 선호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움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큰돈의 경우 가족 73.4% 대비 가족 외 24.5%로 가족 선호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가족 외 관계망

표 3.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계망 크기_큰돈 필요	7,755	1.38	.62	0	4
관계망 크기_생활비 부족	7,755	1.32	.54	0	4
관계망 크기_아플 때	7,755	1.44	.60	0	4
관계망 크기_우울/스트레스	7,755	1.54	.63	0	4
관계망 크기_부당한 일	7,755	1.61	.78	0	4
관계망 크기_전체	7,755	7.30	2.50	0	20

표 4. 선호하는 관계망별 가용 여부

단위: N(%)

구분		큰돈 필요		생활비 부족		아플 때		우울/스트레스		부당한 일	
		선호	가용	선호	가용	선호	가용	선호	가용	선호	가용
가족	0		5,586 (98.1)		5,904 (98.5)		5,872 (98.8)		3,438 (93.3)		3,731 (96.1)
	x	5,692 (73.4)	106 (1.9)	5,996 (77.3)	92 (1.5)	5,945 (76.7)	73 (1.2)	3,683 (47.5)	245 (6.7)	3,881 (50.0)	150 (3.9)
가족 외	0		495 (26.0)		397 (24.4)		539 (31.3)		2,842 (73.3)		2,224 (60.3)
	x	1,899 (24.5)	1,404 (74.0)	1,627 (21.0)	1,230 (75.5)	1,722 (22.2)	1,183 (68.6)	3,876 (50.0)	1,034 (26.6)	3,685 (47.4)	1,461 (39.6)
지인	0		207 (36.1)		286 (43.1)		350 (47.2)		2,688 (86.6)		1,191 (76.7)
	x	568 (7.3)	361 (63.6)	664 (8.6)	378 (56.9)	742 (9.6)	392 (52.8)	3,104 (40.0)	416 (13.4)	1,555 (20.1)	363 (23.3)
공공	0		268 (21.6)		103 (11.5)		170 (19.5)		108 (18.4)		967 (49.8)
	x	1,243 (16.0)	975 (78.4)	898 (11.6)	795 (88.5)	874 (11.3)	704 (80.5)	588 (7.6)	480 (81.6)	1,943 (25.1)	976 (50.2)
민간	0		20 (22.7)		8 (12.3)		19 (17.9)		46 (25.0)		66 (37.3)
	x	88 (1.1)	68 (77.3)	65 (0.8)	57 (87.7)	106 (1.4)	87 (82.1)	184 (2.4)	138 (75.0)	177 (2.3)	111 (62.7)
도움 없음	0		N/A		N/A		N/A		N/A		N/A
	x	164 (2.1)	N/A	132 (1.7)	N/A	88 (1.1)	N/A	196 (2.5)	N/A	199 (2.6)	N/A
전체		7,755 (100)		7,755 (100)		7,755 (100)		7,755 (100)		7,755 (100)	

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생활비의 경우 가족 77.3% 대비 가족 외 21.0%로 가족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애플 때의 경우 가족 76.7% 대비 가족 외 22.2%로 가족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3%로 나타났다. 우울/스트레스의 경우 가족 47.5% 대비 가족 외 50.0%로 비슷한 선호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3%로 나타났다. 부당한 일의 경우 가족 50.0% 대비 가족 외 47.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 선호 응답자 중 선호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큰돈, 생활비, 애플 때의 경우 가족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았고, 우울/스트레스 및 부당한 일의 경우 가족 외 관계망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도움의 영역별로 선호하는 관계망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이 선호하는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가족을 선호하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 외 관계망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선호하는 관계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선호가 가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 청년들의 공공기관 관계망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의 연관성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 변인과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독립의향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성

별, 연령, 지역,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모든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성별과 독립의향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남성집단이 33.1%였고, 여성 집단은 28.3%였다($\chi^2 = 9.73, p < .01$). 연령과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19 ~ 24세 집단이 28.3%, 25 ~ 29세 집단이 35.8%, 30 ~ 34세 집단이 38.3%였다($\chi^2 = 58.84, p < .001$). 지역과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비수도권 집단은 33.1%, 수도권 집단은 28.2%였다($\chi^2 = 19.22, p < .001$). 취업상태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취업자 집단은 24.7%, 실업자 집단은 34.1%, 취업자 집단은 36.0%였다($\chi^2 = 109.42, p < .001$). 가구소득과 독립의향과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소득 2분위 집단은 27.6%, 소득 3분위 집단은 28.4%, 소득 4분위 집단은 31.6%, 소득 5분위 집단은 33.5%, 소득 1분위 집단은 35.5%였다($\chi^2 = 19.90, p < .001$).

관계망 선호도 변인과 독립의향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독립의향과 모든 도움의 영역별 관계망 선호도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큰돈이 필요한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6.7%, 가족 선호 집단은 29.8%, 도움 없음 집단은 28.0%였다($\chi^2 = 32.25, p < .001$).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6.9%, 가족 선호 집단은 30.0%, 도움 없음 집단은 29.5%였다($\chi^2 = 29.21, p < .001$). 애플 때의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6.1%, 도움 없음 집단은 35.2%, 가족 선호 집단은 30.0%였다($\chi^2 = 23.88, p < .001$). 우울/스트레스의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선호 집단은 29.9%,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3.0%, 도움 없음 집단은 29.6%였다($\chi^2 = 8.76, p < .05$). 부당한 일의 경우 관계망 선호도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가족 외 선호 집단은 33.4%, 도움 없음 집단은 31.7%, 가족 선호 집단은 33.4%, 도움 없음 집단은 31.7%, 가족 선호 집단은 33.4%

은 29.6%였다($\chi^2 = 12.70, p < .01$).

관계망 크기 변인과 독립의향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5.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독립의향의 연관성

단위: N(%)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chi^2(df)$
성별	남	1,275 (33.1)	2,581 (66.9)	9.73**(1)
	여	1,161 (29.8)	2,738 (70.2)	
연령	19 ~ 24세	1,360 (28.3)	3,447 (71.7)	58.84*** (2)
	25 ~ 29세	766 (35.8)	1,373 (64.2)	
	30 ~ 34세	310 (38.3)	499 (61.7)	
지역	수도권	760 (28.2)	1,931 (71.8)	19.22*** (1)
	비수도권	1,676 (33.1)	3,388 (66.9)	
학력	고졸 이하	300 (31.6)	650 (68.4)	74.45*** (2)
	대학 재휴학	838 (26.2)	2,357 (73.8)	
	대졸 이상	1,298 (36.0)	2,312 (64.0)	
취업상태	취업자	1,566 (36.0)	2,781 (64.0)	109.42** (2)
	실업자	107 (34.1)	207 (65.9)	
	비경제활동	763 (24.7)	2,331 (75.3)	
가구소득	1분위	130 (35.5)	236 (64.5)	19.90*** (4)
	2분위	168 (27.6)	440 (72.4)	
	3분위	503 (28.4)	1,267 (71.6)	
	4분위	749 (31.6)	1,621 (68.4)	
	5분위	886 (33.5)	1,755 (66.5)	

** $p < .01$, *** $p < .001$.

표 6. 선호 관계망과 독립의향의 연관성

단위: N(%)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chi^2(df)$
선호 관계망_큰돈	가족	1,694 (29.8)	3,998 (70.2)	32.25*** (2)
	가족 외 ¹⁾	696 (36.7)	1,203 (63.3)	
	도움받을 데가 없음	46 (28.0)	118 (72.0)	
선호 관계망_생활비	가족	1,796 (30.0)	4,200 (70.0)	29.21*** (2)
	가족 외 ¹⁾	601 (36.9)	1,026 (63.1)	
	도움받을 데가 없음	39 (29.5)	93 (70.5)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chi^2(df)$
선호 관계망_아플때	가족	1,783 (30.0)	4,162 (70.0)	5,945 (100.0)	23.88*** (2)
	가족 외 ¹⁾	622 (36.1)	1,100 (63.9)	1,722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31 (35.2)	57 (64.8)	88 (100.0)	
선호 관계망_우울/스트레스	가족	1,100 (29.9)	2,583 (70.1)	3,683 (100.0)	8.76* (2)
	가족 외 ¹⁾	1,278 (33.0)	2,598 (67.0)	3,876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58 (29.6)	138 (70.4)	196 (100.0)	
선호 관계망_부당한 일	가족	1,147 (29.6)	2,734 (70.4)	3,881 (100.0)	12.70** (2)
	가족 외 ¹⁾	1,226 (33.4)	2,449 (66.6)	3,675 (100.0)	
	도움받을 데가 없음	63 (31.7)	136 (68.3)	199 (100.0)	

주. 1) 가족 외: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와 독립의향의 연관성

단위:N(%)

변인		독립의향 있음	독립의향 없음	전체	$\chi^2(df)$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	매우 작음 (0 ~ 5)	795 (29.0)	1,942 (71.0)	2,737 (100.0)	42.04*** (3)
	약간 작음 (6 ~ 7)	493 (27.9)	1,275 (72.1)	1,768 (100.0)	
	약간 큼 (8 ~ 10)	907 (34.8)	1,699 (65.2)	2,606 (100.0)	
	매우 큼 (11 ~ 20)	241 (37.4)	403 (62.6)	644 (100.0)	

*** $p < .001$.

표 7과 같으며, 독립의향과 관계망 크기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관계망 크기와 독립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립의향이 있는 매우 큼 집단은 37.4%, 약간 큼 집단은 34.8%, 약간 작음 집단은 27.9%, 매우 작음은 29.0%였다($\chi^2 = 42.04$, $p < .001$).

3. 성인이행기 청년의 독립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와 동거중인 성인이행기 청년의 독립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Model I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독립의향

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투입하였고,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 = 194.86$, $p < .001$). Model II는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망 크기 및 선호 관계망 유형 변인의 독립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chi^2 = 264.87$, $p < .001$), 관계망 인식 변인을 포함한 Model II에서 모형적합도 및 설명력 모두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지역, 취업, 가구소득, 관계망 크기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연령, 학력, 선호 관계망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인별 세부적인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1.25배 높았고($p < .001$),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1.34배 높았다($p < .001$). 비경제활동 집단 대비 실업자 집단의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1.36배 높았고($p < .05$), 비경제활동 집단 대비 취업자 집단은 1.54배 높았다($p < .001$). 가구소득 1분위 집단 대비 2분위 집단의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은 0.66배 적었고($p < .01$), 1분위 집단 대비 3분위 집단은 0.68배 적었고($p < .01$), 1분위 집단 대비 4분위 집단은 0.77배 적게 나타나($p <$

.05), 1분위 집단에서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4분위, 3분위, 2분위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망 인식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계망 크기가 매우 작음(0 ~ 5)집단 대비 약간 큼(8 ~ 10) 집단이 독립의향을 가질 확률이 1.28배 높게 나타났고($p < .001$), 관계망 크기가 매우 작음(0 ~ 5)집단 대비 매우 큼(11 ~ 20) 집단은 1.47배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 8. 독립의향 영향요인 결과

(N = 7,755)

구분	변인(기준변인)		Model I				Model II			
			B	S.E.	Exp(B)	p	B	S.E.	Exp(B)	p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여)	남	.22	.05	1.24	.000	.22	.05	1.25	.000
	연령(19 ~ 24)	25 ~ 29	.08	.07	1.08	.237	.08	.07	1.08	.245
		30 ~ 34	.13	.09	1.14	.154	.14	.09	1.15	.122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28	.05	1.32	.000	.29	.05	1.34	.000
	학력 (고졸이하)	대학재학/휴학	-.06	.09	.95	.530	-.06	.09	.95	.521
		대졸이상	.16	.08	1.17	.051	.16	.08	1.17	.057
	취업 (비경제활동)	실업자 ¹⁾	.35	.13	1.42	.007	.31	.13	1.36	.019
		취업자 ²⁾	.45	.06	1.57	.000	.43	.06	1.54	.000
	가구소득 ³⁾ (1분위)	2분위	-.42	.14	.66	.004	-.41	.14	.66	.004
		3분위	-.38	.12	.68	.002	-.39	.12	.68	.002
4분위		-.26	.12	.78	.033	-.26	.12	.77	.033	
5분위		-.22	.12	.80	.061	-.22	.12	.80	.066	
관계망 인식 특성	선호_큰돈 (없음)	가족					.03	.21	1.03	.896
		가족외 ⁴⁾					.19	.22	1.21	.381
	선호_생활비 (없음)	가족					.23	.25	1.26	.349
		가족외 ⁴⁾					.32	.25	1.38	.194
	선호_질병 (없음)	가족					-.38	.28	.68	.171
		가족 외 ⁴⁾					-.27	.28	.76	.328
	선호_우울/스트레스 (없음)	가족					.14	.20	1.15	.477
		가족 외 ⁴⁾					.12	.19	1.13	.515
	선호_부당한일 (없음)	가족					-.04	.19	.96	.821
		가족 외 ⁴⁾					-.04	.19	.96	.836
관계망크기 ⁵⁾ (매우 작음)	약간 작음					-.05	.07	.95	.476	
	약간 큼					.25	.06	1.28	.000	
	매우 큼					.39	.09	1.47	.000	
상수항			-1.17	.14	.31	.000	-1.33	.30	.26	.000
Model Chi Squire(df), Sig			194.86(12), < .001				264.87(25), < .001			
-2 LL			9457.91				9387.90			
Cox와 Snell의 R ²			.03				.03			
Negelkerke의 R ²			.04				.05			

주. 1) 실업자: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자, 2) 비경제활동: 학생, 심신장애인, 구직 단념자, 3)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구소득 5분위 기준에 따라 가구 총소득 분류(1분위: 하위20% ~ 5분위: 상위20%), 4) 가족 외 관계망: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5) 관계망 크기(1 ~ 20): 0 ~ 5 매우 작음, 6 ~ 7 약간 작음, 8 ~ 10 약간 큼, 11 ~ 20 매우 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 관계망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경향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청년들이 인식하는 도움의 주요 원천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외 관계망과 큰 격차를 보였는데, 특히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같은 공식 관계망을 도움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도움의 영역별 관계망 크기는 평균 2개에 못 미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관계망 자원이 거의 가족에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상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계층으로 여겨졌던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특수 지위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전반으로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지지와 연결감을 경험하는 통로로, 이러한 관계망의 약화에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더해져 점차 고립이 심화되는 고립·은둔청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류주연, 성기옥, 김수진, 2023; 유민상, 신동훈, 2021; 조미형, 고아라, 2022). 따라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전반에 걸친 관계망 취약성에 대한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들의 관계망 선호도를 살펴보면, 큰돈, 생활비, 애플 때의 경우에 있어 가족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우울/스트레스 및 부당한 일의 경우 가족과 가족 외 관계망 선호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도움의 영역별로 관계망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울/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은 가족 다음으로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청년 중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 내외에 그쳐 매우 낮았다. 이는 청년들이 가족 외의 관계망에 대한 확장 전이 욕구가 있으나(Szwedo, Hessel, Loeb, Hafen, & Allen, 2017), 실제로 가족 외 관계망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계망과 실제 이용하는 관계망의 격차를 고려할 때 청년들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써 공공 및 민간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독립의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관계망 선호도, 관계망 크기 등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연령, 부모소득, 지역, 학력, 취업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가 및 경제적 독립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송지현, 정소희, 2014; 심재휘 등, 2018; 정기덕, 2018; 조현지, 진미정, 2023; Berg, 2007; Silva, 2012). 나아가 안전(오호영, 2015), 경제적 요인(심재휘 등, 2018; 이영분 등, 2011) 외에도 관계망 크기 및 선호도 등의 관계망 요인 또한 독립의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청년의 독립을 주로 취업, 가구소득 등 경제적 특성과 연관 지어 다루어왔던 기존 연구의 관심을 개인적, 관계적 특성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특히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족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체계는 성인이행기 청년의 삶에서 성인됨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Crocetti & Meeus, 2014; Lambert et al., 2010; Tsai, Telzer, & Fuligni, 2013). 전환기는 청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로,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성(Bucx, van Wel, & Knijn, 2012; Scabini, Marta, & Lanz, 2006)과 부모가 자녀를 성인의 지위로 인정하는 지에 따라 자율성과 의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Kloep & Hendry, 2010; Oliveira, Fonseca, Sotero, Crespo, & Relvas,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성인이행기 자녀에 대한 인식 및 가족 내 세대 간 지원 요인 등의 가족 요인과 독립의향 간 관련성을 탐색하여, 가족 체계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들의 독립의향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성별, 지역, 취업, 가구소득과 관계망 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계망 관련 변인을 추가했을 때 독립의향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관계망 크기가 커질수록 독립 의향을 갖을 확률이 증가해 관계망 요인이 청년의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관계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청년의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전보다 관계망 욕구 및 크기가 확장하는 시기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antor, 1979; Carstensen, 1995; Kahn & Antonucci, 1981; Liao & Carstensen, 2018; Scholte et al., 2001; Segrin,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청년의 관계망 취약성을 보완하고 독립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년 및 가족구성원이 독립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자립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넓혀 좀 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독립심을 경험하도록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복지 욕구를 살펴보면, 고용, 자기 탐색, 소득, 주거, 학자금, 자산 순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 욕구 차이가 커 정책 공급과 수요 간 연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정세정 등, 2020). 또한 청년기는 그 어떤 생애주기보다 종합적 접근을 요구하나, 경제, 생활, 정신건강 등 영역별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책 주관부처가 다르거나 혼재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일시성 현금지원이나 단기 관계망 프로그램 등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어 청년 자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립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 평가와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김형주 등, 2021;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정세정 등, 2020). 참고해볼 수 있는 사

례로 민간 자립지원 사업인 ‘희망플랜’을 살펴볼 볼 수 있다. 니트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행한 ‘희망플랜’ 사업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자립역량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성과는 거의 미미해 자립관계망 지원 정책과 개입은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적 인내심이 요구됨을 시사한다(박미희, 2022). 한편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청년 정책 접근 경로를 살펴보면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SNS, 광고물,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났는데(심명섭, 부기철, 2020), 이는 지인 관계망의 취약성이 공공기관 관계망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분산되어 정책 접근성의 문제가 지적되며, 청년 정책의 통합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기현 등, 2020). 이러한 접근성 및 활용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공공기관 지원 정책들을 공유하고 청년 스스로 자원에 접근하고 활용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관계망 취약성은 가족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가족관계를 악화키는 요인일 수 있어, 독립에 대한 인식의 확장 및 가족 외 관계망 활용 교육 등에 있어 가족 단위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다뤄왔던 사회적 관계망 및 자립 과정에 대한 관심을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여 독립의향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간 청년의 독립은 주로 결혼, 취업, 분가 등과 같은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해왔고, 경제 및 주거 독립을 독립으로 간주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에 대해 ‘캥거루족’, ‘연어족’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최연실, 2014).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측면과 연루되어 있어, 분가나 경제적 독립과 같은 물리적인 독립의 제약이 크고 이는

청년 개인의 역량과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독립 과정에서 관계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도움이 필요할 때 다양한 관계망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rnett(2000, 2015)은 성인이행기 관련 연구들을 통해 생애사건 지표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좀 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이 성인됨의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청년들이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를 적절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독립심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것에 연구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계망 요인이 독립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모형을 최대한 간결하게 설정하였다.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중 질적 특성을 제외하고 양적 특성에 제한하였고,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및 독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족과의 관계적 특성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독립의향 및 관계망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 과정에서 가족 및 가족 외 지지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계망 자원에 접근하고 도움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이민정, 배진우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수지, 이선희, 권두리 (2020).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 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27(3), 137-163.
<https://doi.org/10.15284/kjhd.2020.27.3.137>
-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https://doi.org/10.14816/SKY.2016.27.3.257>
- 김현영, 김태연 (2021). 제주 지역 여성청년의 독립 경험에 관한 공간정치적 접근. *공간과 사회*, 78, 198-245.
<https://doi.org/10.19097/KASER.2021.31.4.198>
-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민지 (2022).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주택시장 환경이 청년 독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30(1), 103-130.
<https://doi.org/10.24957/hsr.2022.30.1.103>
- 류주연, 성기옥, 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https://doi.org/10.16881/jss.2023.07.34.3.47>
- 박미희 (2022). 청년 자립을 위한 민간 프로그램 사례: 사랑의 열매 희망플랜(시즌1, 2) 성과와 교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발표자료.
- 박윤희 (2016). 노년기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이 노인의 사회활동욕구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9(1), 117-135.
- 송인주 (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재단.
- 송지현, 정소희 (2014).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31-57.
<https://doi.org/10.17854/ffyc.2014.01.37.31>
- 심명섭, 부기철 (2020).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고찰: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0(4), 369-387.
- 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누가 켄거루족이 되는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격차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4(4), 29-53.
<https://doi.org/10.29318/KER.24.4.2>
- 안희란,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복지연구*, 22(2), 61-84.
<https://doi.org/10.19034/KAYW.2020.22.2.03>
- 오호영 (2015). 켄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협동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 (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 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3), 5-30.
- 이준석, 김현주 (2016). 경제적 자립전망과 자아정체성 유예

- 가 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169-194.
- 정기덕 (2018).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원인에 관한 연구: 미혼성인자녀와 기혼성인자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 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 조미형, 고이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고립 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https://doi.org/10.20970/kasw.2022.74.4.005>
- 조성호 (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
<https://doi.org/10.15709/hsr.2018.38.4.398>
- 조현지, 진미정 (2023). 나도 ‘캐거루족’인가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가구 내 상대소득 유형별 특성과 생활 만족도. *가정과삶의질연구*, 41(3), 81-93.
<https://doi.org/10.7466/JFBL.2023.41.3.81>
- 주유선 (2020). 청년의 사회적지지. *보건복지포럼*, 2020(6), 59-68.
<https://doi.org/10.7466/JFBL.2023.41.3.81>
- 최연실 (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가정과삶의질연구*, 32(4), 75-89.
<https://doi.org/10.7466/JKHMA.2014.32.4.75>
- 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74(2), 53-78.
<https://doi.org/10.20970/kasw.2022.74.2.003>
- 통계청. (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23). 국민 삶의 질 2023.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Arnett, J. J. (2015). *The oxford handbook of emerging adult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 J. A. (2007). Subjective age identity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Social Thought & Research*, 28, 145-163.
<https://doi.org/10.17161/str.1808.5219>
- Bucx, F., van Wel, F., & Knijn, T. (2012). Lifecourse status and exchanges of support between young adults an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1), 101-115.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1.00883.x>
-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4), 434-463.
<https://doi.org/10.1177/016402757914002>
- Carstensen, L. L. (1995). Evidence for a life-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5), 151-156.
<https://doi.org/10.1111/1467-8721.ep11512261>
- Crocetti, E., & Meeus, W. (2014). “Family comesfirst!”: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in Italian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ce*, 37(8), 1463-1473.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4.02.012>
- Kahn, R. L., & Antonucci, T. C. (1981). Convoys of social support: A life-course approach. In *Aging: Social change* (pp. 383-405). New York: Academic Press.
- Kloep, M., & Hendry, L. B. (2010). Letting go or holding on?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during emerging adulthoo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817-834.
<https://doi.org/10.1348/026151009X480581>
- Lambert, N. M., Stillman, T. F., Baumeister, R. F., Fincham, F. D., Hicks, J. A., & Graham, S. M. (2010). Family as a salient source of meaning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5), 367-376.
<https://doi.org/10.1080/17439760.2010.516616>
- Liao, H. W., & Carstensen, L. L. (2018). Future time perspective. *GeroPsych*, 31(3), 163-167.
<https://doi.org/10.1024/1662-9647/a000194>
- Mitchell, J. C. (1974).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279-299.
<https://doi.org/10.1146/annurev.an.03.100174.001431>
- Murphy, K. A., Blustein, D. L., Bohlig, A. J., & Platt, M. G. (2010). The college-to-career transition: An exploration of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8(2), 174-181.
<https://doi.org/10.1002/j.1556-6678.2010.tb00006.x>
- OECD. (2022, November). OECD Regional well-being. Retrieved February 4, 2024, from <https://www.oecdregionalwellbeing.org/KR01.html>
- Oliveira, C., Fonseca, G., Sotero, L., Crespo, C., & Relvas, A. P. (2020). Family dynamics during emerging adulthood: Reviewing, integrating, and challenging the fiel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3), 350-367.
<https://doi.org/10.1111/jftr.12386>
- Paulsen, V., & Berg, B. (2016). Social support and interdependency in transition to adulthood from child welfare serv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8,

- 125-131.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6.07.006>
- Scabini, E., Marta, E., & Lanz, M. (200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d family relations: An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London, England: Psychology Press.
- Scholte, R. H., Van Lieshout, C. F., & Van Aken, M. A. (2001). Perceived relational support in adolescence: Dimensions, configurations,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71-94.
<https://doi.org/10.1111/1532-7795.00004>
- Segrin, C. (2003). Ag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social problem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3), 317-342.
<https://doi.org/10.1093/hcr/29.3.317>
- Silva, J. M. (2012). Constructing adulthood in an age of uncertain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4), 505-522.
<https://doi.org/10.1177/0003122412449014>
- Sulimani-Aidan, Y. (2015). Do they get what they expect?: The connection between young adults' future expectations before leaving care and outcomes after leaving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5, 193-200.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5.06.006>
- Szwedo, D. E., Hessel, E. T., Loeb, E. L., Hafen, C. A., & Allen, J. P. (2017). Adolescent support seeking as a path to adult functional indepen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949-961.
<https://doi.org/10.1037/dev0000277>
- Tsai, K. M., Telzer, E. H., & Fuligni, A. J. (2013).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percep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84(2), 471-484.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2.01858.x>